

# 對共產圈 에너지部門

## 경제협력 가능성

李紀勳 / 沈成燮

### 1. 對共產圈 交易現況

「공산권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을 요즘은 흔히 들을 수 있다. 이 말을 이제 과연 누가 공산국가들의 군대가 쳐들어 온다라고 받아들여졌는가.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급격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산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헝가리가 3월 서울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한데 이어 금년 중 유고, 폴란드, 東獨등과도 실질적인 교역관계가 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3국이니 특수지역으로 지칭되던 中共과의 非公式의 인 교역관계도 급속히 개선될 전망이다. 중공과는 86아시안게임이후 체육교류를 스타트로 홍콩을 경유한 간접 무역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88년 올림픽이후에는 무역사무소가 개설되어 양국간 경제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련도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개방화물결이 드높은 가운데 88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우리와의 교역관계는 한층더 개선될 것이다. 특히 공산권의 88올림픽 참가와 美蘇의 INF협정체결에 따른 동서화해무드는 동서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對北韓關係改善에 노력 90年代중반까지는 북한과의 관계를 현재의 동서독 이상수준으로 진전시킨다는 견해가 피력된 바 있다.

이러한 對공산권교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 6·23선언으로 공산권국가들에 대한 문호개방을 천명한 이래 체육, 학술, 문화등 비정치적인 분야는 물론 간접교역을 소리없이 증가시켜 왔다.

그리하여 70년대 중반 유고를 중심으로 시작된 대공산권 교역은 작년에는 23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中共의 경우 교역량이 81년 2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86년에는 7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19억달러로 한해안에 2배이상 늘어났다. 동구권과의 교역량은 4억수준으로 이중 소련이 가장 많고 동독, 체코, 유고순으로 되고있다. 교역품목은 우리가 주로 가전제품등 경공업제품을 수출하고, 원목 유연탄 등 1차상품을 많이 수입하였다.

물론 이같은 교역량은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량 877億달러에 비하면 3%에도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역형태가 홍콩,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을 통한 間接貿易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헝가리등 일부 東歐國家들과 換契約를 체결할 정도로 交易零圍氣가 개선되고 있고, 민간기업의 合作投資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向後 貿易事務所 開設등이 실현되면 直接交易의 增大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 에너지部門에 있어서 共產圈과의 交流 可能性

에너지部門에 있어서 共產圈과의 交流增大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中共이나 蘇聯은 世界首位 에너지資源保有國이자 에너지 大輸出國이다. 이들 國家들의 에너지輸出收入이 최대 外換收入源이 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國內輸入需要의 급속한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國內에너지需要增加를 억제해 가면서까지 에너지輸出增大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에너지資源이 극히 빈약하여 石油, 有煙炭등 주요 에너지資源의 막대한 輸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對共產圈과의 에너지交易는 선진國과의 貿易摩擦激化로 市場多變化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市場開拓의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에너지導入先 多變化를 기할 수 있고, 특히 中共이나 蘇聯의 극동지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수송비절감 등 經濟적으로 유리한 요소가 많으며, 이는 政治, 군사적으로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共產圈 國家들이 國內 未開拓 에너지자원개발에 外國資本과 技術導入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바 海外資源開發 進出을 권장하고 있고 또 海外資源開發의 경험과 知識이 축적된 우리로서도 이를 고려해 볼 可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共產圈國家에 대한 石油파이프라인, 石炭수송용鐵道, 부두하역시설 등 하류부문에 대한 진출도 추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간접교역 형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對共產圈 교역대상품목 가운데 原油, 有煙炭 등 에너지관련 1次產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中共과의 에너지교역 가능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와 中共과의 교역규모는 급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1981년 2億달러 정도이던 交易規模가 1986년에는 7억달러, 1987년에는 20억달러로 7년만에 10배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교역량이 급증할 수 있게 된 배경으로는 다음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中共으로서는 80年代 들어 본격화된 현대화계획의 추진에 따라 외국자본이나 技術 및 商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韓國이 60~70年代에 中共과 비슷한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中共은 필요로 하는 상품을 日本보다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고, 技術導入이라는 측면에서는 韓國이 先進國으로부터 도입하여 소화한, 혹은 자체개발한 기술이 막 개발 단계에 들어선 中共에게는 오히려 더 적합한 적정기술이 되고 있다. 또한 韓國은 지리적으로도 日本보다 가깝고 文化的으로 親和感이 있는 반면 日本은 과거 침략국으로서의 적대감이 남아 있고 中共이 一國과의 貿易에 너무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韓國과 中共과의 경제협력추세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西海岸을 집중 개발, 中共과의 교역증대를 추진하는 '西海岸시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兩國間 관계개선을 위해 노 태우 大統領이 中共을 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호응하여 中共은 韓國의 西海岸開發을 '黃海개발'로 환영하며, 韓國의 西海岸과 가까운 中共海岸을 經濟特區로 지정 交易增大에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田紀雲 中共 副首相은 韓國과의 直交易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피력한 바 있으며, 88년 올림픽 참가 이후 서울에 무역사무소를 開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양국간 교역증대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충분한 제반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에너지부문에 있어서 양국간의 經濟協力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中共의 原油, 무연탄, 역청탄 등을 일부 수입해 왔으나 앞으로 兩國間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에너지部門의 교류도 多方面으로 전개될 조건은 충분하다 하겠다. 中共은 自主, 平等, 互惠의 貿易政策을 내세워 一國에 대한 貿易不均衡의 심화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輕工業製品 등의 수출을 늘릴 경우 그만큼 中共의 주요수출품목인 石油, 石炭 등 1次產品의 수입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중공의 에너지수출은 80년대들어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수출분야가 되고 있다. 石油수출은 80~85년에 두배나 증가되어 현재 年間 60萬B/D에 달하고 있는데 85年 輸出額은 78億달러로 최고에 달했으며, 86년에는 油價하락등의 영향으로 38억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石炭수출액은 3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中共의 수출정책은 輸出商品의 고급화를 위해 에너지 등 1次產品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中共은 資本材 등 輸入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외환보유고의 증대를 위하여 石油, 石炭 등 에너지產品의 수출을 단기

적으로는 줄이기 어려운 형편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에너지수출의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석탄수출정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中共당국은 과거 石炭輸出은 중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70年代 들어서는 石炭輸出이 급격히 증대하였으며, 특히 85~86年 사이에는 30%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주목할만한 점은 中共정책당국이 86年 6월에 7次5個年계획기간(86~90年)中 石炭輸出目標을 연간 500萬톤이상 상향 조정한 사실이다. 이는 최근 油價하락에 따라 石油收入이 감소함에 따른 외환손실을 石炭수출로 보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어 中共이 외화획득을 위한 에너지輸出증대정책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中共은 합작투자에 의한 石炭生産分에 대한 수출도 증대시킬 계획이다. 예컨대 美國 옥스텐탈社에 의해 개발된 Ping Shuo탄광은 92년에 풀 가동되면 생산능력은年間 1,400萬톤에 이를 전망인데 生産의 90%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다. 이는 合作投資炭鑛에 소요되는 자금을 石炭수출로 충당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中共의 石炭은 대체로 유행이나 희의성분이 적은 高品質이나 洗炭率이나 선광능력이 크게 떨어져 輸出石炭의 質은 그리 좋은 편이 못된다. 또한 石炭輸送施設이나 부두하역시설 등 하류부분이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價格競争力面에서는 호주나 캐나다보다는 낫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中共 石炭産業에 대한 진출가능분야는 합작투자에 의한 노천탄광개발, 노후화된 채광설비 및 기술 향상 지원, 洗炭플랜트 건설, 石炭輸送, 항만시설 건설 등을 들 수 있으며, 價格面에서나 地理的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광양이나 포항종합제철에 소요될 石炭의 直輸入 또한 경제성이 있다. 이때 中共의 외환부족을 감안하면 바터무역(Barter trade)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85년 브라질은 철광을 수출한 대신

中共의 石炭을 50萬톤 수입한 바 있으며, 中共은 이러한 바터去來를 여타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石油部門의 交流는 石油의 直輸入, 石油製品의 輸出, 石油자원개발에의 참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中共의 原油는 왁스(Wax)成分이 많고 中質製品의 收率이 70%를 넘는다. 석유수출물량은 적어도 90년까지는 60~80萬B/D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선 中共이 石油輸出收入확보를 위해 국내수요를 억제하여 정책적으로 輸出이 불가피하며, 國內精製能力面에서도 현재의 생산량 및 앞으로의 생산증대분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中共의 石油수출은 대체로 상대국 政府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 國家들에 대한 수출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고, 가격면에서 現物油價에 連動하거나 네트백價格을 제시하는 등 매우 신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中共石油資源은 국내에서도 지역적 편재성이 강해서 國內間 移動 보다 인접국가에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中共産原油導入은 가격면에서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으며, 공급선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中共側으로서도 한국이 적합한 파트너로서의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셈이다. 石油製品의 수출입은 우선 中共의 부족한 精製設備를 감안 原油의 委託精製, 혹은 半加工再輸出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中共의 石油製品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相互補完的인 製品輸出入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中共은 향후 성장의 관건이 에너지供給增大에 달려있으므로 經濟計劃의 重點이 에너지資源開發에 주어지고 있다. 中共은 에너지資源開發 특히 陸上 및 海底油田개발에 外國資本 및 기술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對中共 외국인 투자분야 中 海洋資源開發 분야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中共은

〈表 - 1〉 中共의 에너지 수출전망

	1986	1990	1995	2000	年平均增加率 (%, 87~2000)
石油(萬B/D)	70	70	80	70	0
石炭(萬噸)	990	2,000	3,200	5,190	12.6

〈資料〉 KIER, 「에너지動向」, 1988. 1. 11

〈表 - 2〉 中共 수출입 전망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實質 GDP 成長率 (%)	7.8	7.4	6.8	6.5	6.2	5.9	6.3
輸 出 (10億 \$)	30.94	37.75	43.46	52.09	62.34	72.48	86.08
純 에너지輸出 (千 B/D)	575.5	566.3	568.7	581.1	584.7	552.0	552.2
輸 入 (10億 달러)	39.64	37.38	48.93	69.10	74.02	78.72	93.41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Dec. 1987

80년대들어 두차례의 海洋 鑛區를 外國企業에 분양한 데 이어 금년에는 3次鑛區分讓을 실시할 계획이며, 85년부터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가며 陸上鑛區를 開放 外國企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물론 이 부문은 막대한 자금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반면 投資回收期間이 길고 投資의 위험도 높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수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된 만큼 앞으로 시도해 볼 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와 中共間의 경계를 이루는 西海岸 대륙붕지대는, 대륙붕 경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向後 양국 공동개발을 추진해 볼적도 하다.

#### 4. 소련과의 에너지交易 가능성

소련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고 東歐圈에 대한 石油輸出分까지 감안하면 사우디에 이어 세계 두번째 石油輸出國이다. 87년의 경우 소련의 산유량은 하루 1,250만배럴에 달했고 이 중 370만배럴(製品包含)을 수출하였다. 이 가운데 東歐圈에는 200만배럴이, 서방세계에는 175만배럴이 수출되었다. 天然가스의 경우 87년에 25.6조가

생산되었는데, 이중 3조가 東歐와 西方으로 절반씩 수출되었다.

소련의 에너지생산목표는 石油의 경우 87년 하루 1,250만배럴에서 2000년까지 1,300~1,350만배럴로, 천연가스의 경우 25.6조에서 45조로 되어있다. 소련은 석유증산을 위해 主産地인 西部시베리아 油田開發 및 시설 유지·보수에 주력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극동에 위치한 東部시베리아에 대한 첫 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石油수출은 가장 중요한 硬化獲得源으로서 86년의 경우 輸出額이 85億달러, 87년에는 109億달러에 달했다. 향후 소련의 石油수출은 생산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경우 87년 수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부문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소련과의 協力은 그 잠재력은 충분히 인정되나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과 정도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련의 石油, 天然가스輸出은 대륙횡단 파이프라인에 의해 東歐 및 西歐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소련이 자국내 에너지資源開發, 즉 기존유전시설의 낙후, 기술부족의 극복이나 신규유전개발에 自由世界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고도의 진보된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와 인

〈表 - 3〉 소련의 에너지 수출전망

	1986	1990	1995	2000	年平均增加率 (%) , 87-2000
石 油 (萬 B/D)	361	381	371	341	- 0.4
對 西 方	181	202	202	171	- 0.4
天 然 气 (10億 m <sup>3</sup> )	84.6	121.1	127.0	128.0	3.0
對 西 方	43.8	56.1	62.0	63.0	2.6

〈資料〉 「石油協會報」, 1988. 2.

〈表 - 4〉 소련의 輸出入 전망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實質GDP成長率(%)	3.4	2.1	2.2	2.4	2.4	2.0	2.1
輸出(對西方, 百萬\$)	32,252	34,713	38,285	41,436	43,514	46,284	50,364
純에너지輸出(千B/D)	4,932	5,119	5,145	5,138	5,259	5,229	5,257
輸入(對西方, 百萬\$)	29,496	31,228	34,707	38,525	40,701	44,164	46,868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Dec. 1987

접한 극동지방에서는 사할린 등지에서 하루 5만배럴 정도의 石油가 생산되고 있는데 소련 극동지역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도 현재 소련으로 부터 하루 1만7,000배럴 밖에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극동지역에서는 사할린대륙붕개발 호호츠크해저유전개발 등이 진척되면서 산유량이 늘어나면 輸出餘力은 다소 증가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그다지 기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日本은 현재 사할린대륙붕가스·석유탐사개발사업에 참여, 성공불조건의 신용으로 소련에 탐광설비를 공여하고 있으며, 石炭의 경우 南야크트炭田開發計劃에 참여, 탄전개발용 기기를 공급하고 그 對價로 石炭을 공급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소련으로부터 石炭은 일부 도입하고 있는데, 日本의 진출사세를 참조하여 신규 油田의 共同探査개발이나 炭田개발프로젝트에 協力을 시도해 볼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 5.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共產圈과의 경제협력은 경제면에서 뿐만아니라 政治, 外交, 文化등 각방면에서 양측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고 있으며, 현실 여건도 충분히 조성되고 있어 그 가능성이 매우 밝은 편이다. 특히 對共產圈交易에 있어서 에너지部門에 대한 協力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리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對共產圈교역에는 낙관할 수 없는 요소들이 적지 않다.

첫째, 共產國家와의 협력증진이 진행되면 될수록 北韓

의 견제가 강화될 것이며, 共產國家들이 北韓과의 관계를 결코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共產圈國家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들 수 있다. 中共의 경우 최근(85.86年) 100億달러가 넘는 貿易赤字에 허덕임에 따라 輸入餘力의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며, 東歐圈國家들은 경제불황, 800億달러를 상회하는 外貨, 物價高를 겪고 있으며, 蘇聯도 油價下落, 石油生産부진 등으로 外換不足에 직면해 있다.

세째, 東西和解무드가 고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데올로기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더우기 예기치 못한 사태발생에 따른 冷戰의 확산으로 經濟交流가 단절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향후 공산권과의 교역환경이 급속히 개선되더라도 과거 中東景氣式好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對共產圈交流는 上記한 장애요소들을 감안하여 차분하고 신중한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부문에 있어서는 政府次元에서의 지원과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부문은 막대한 자금과 시일이 소요되고, 商品 이전에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供給의 安定性이 중시되며, 여러개 산업의 공동진출이 유망하기(예컨대 石炭輸送用 鐵道建設에 참여하고 그 代金을 石炭이나 石油로 지불받을 경우 建設, 石炭, 精油産業 등이 관련된) 때문이다.

아울러 北韓과의 관계개선 또한 對共產圈 협력증진에 큰 활기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逆으로 對共產圈관계개선은 北韓에 대한 관계개선압력으로 작용 궁극적으로는 韓半島의 平和定着에 기여하게 되므로 상승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